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방안 :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을 중심으로¹⁾

양혜원 (충신대학교)

김희수 (한국성서대학교)(사회복지 4-2)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조사연구는 심층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의 3 단계로 수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사랑의교회 내에서 복지사역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사랑의교회 교역자 75명, 교인 54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교회 복지사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대형교회의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복지사역, 대형교회, 사랑의교회

1) 본 연구는 사랑의교회 연구용역과제로 수행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비전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를 토대로 한 것임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그의 제자된 성도들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힘쓰으로써 제자도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칼빈은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물질적 필요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손병덕, 2004: 163) 교회와 기독교인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후기에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는 바로 이러한 구제와 사회봉사에서 비롯되었다. 구한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독교 외원단체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들을 위하여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우고 자선사업과 구빈활동 중심의 사회봉사를 주도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이 지속되어서 199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사회복지법인 중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6%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에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종교별 운영주체를 분류한 결과에서도 기독교가 전체의 45%를 차지하여, 각각 12%로 나타난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윤실, 2010).

사회적 섬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기여해 온 기독교는 그간 양적 규모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성장세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신과 비난에 직면해있다. 상기한 기윤실(2010)의 조사결과,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2~3년 전 대비 한국교회 신뢰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69.4%,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이 4%인 반면,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은 무려 26.6%로 나타나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예방합동총회 교육개발원에서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신학생들조차 25.8%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창민, 2009. 11. 16).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난과 불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그간 이룬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헌신한 바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찬(2007: 25)은 한국교회가 비축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 미흡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평균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전체 예산의 10.6%로 나타났다(이만식, 2007). 그런데 미국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평균 15%, 캐나다교회는 평균 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윤만길, 2009: 45에서 재인용),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비용은 미국교회의 약 70%, 캐나다교회의 1/2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윤실(2010)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중단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와 사회봉사에 더욱 힘써야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사회구성체로서 신앙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행의 차원에서도 구제와 사회봉사를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는 정상원(2009: 2)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수많은 평신도들을 헌신된 주의 제자들로 변화시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사랑의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구제와 사회봉사에 힘을 기울여왔다. 구제와 사회봉사 사역을 본격화하고자 1992년 기존의 구제선교분과위원회를 이웃사랑선교부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에는 사랑의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사랑의복지관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구호사역에도 헌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춰버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앞으로 사랑의교회가 그 동안 한국교회에 끼쳐온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제와 사회봉사, 즉 복지사역에 있어서 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구성원들과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타 대형교회의 복지사역 발전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심층면접

1) 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심층면접 참여자는 현재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사역 발전방안을 수립해나기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교회 복지사역 관계자들이다. 사랑의교회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인 이웃사랑선교부와 교회 산하 복지재단인 사랑의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초기 면접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추가적인 면접 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후속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최종 면접 참여자는 12명이며, 이들의 특성을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소속부서	직분
참여자 1	남	50대	이웃사랑선교부	목사
참여자 2	남	40대	이웃사랑선교부	목사
참여자 3	여	30대	이웃사랑선교부	집사/실장
참여자 4	남	50대	사랑의복지재단/사랑의복지관	목사/관장
참여자 5	남	40대	사랑의복지재단/반포복지관	집사/관장

참여자 6	남	60대	사랑의복지재단	장로/이사
참여자 7	남	30대	사랑의복지재단	집사/과장
참여자 8	남	40대	교회행정	목사/행정수석
참여자 9	남	40대	국제제자훈련원	목사/EP
참여자 10	남	60대	장로회	장로/행정수석
참여자 11	남	50대	호스피스·의료선교회	목사
참여자 12	남	40대	북한사랑의선교부	목사

2) 심층면접의 목적 및 내용

심층면접의 목적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핵심 관계자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고, 이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복지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복지사역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심층면접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향후 사랑의교회가 복지사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면접 참여자 간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2010년 1월 26일에서 2월 10일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면접 참여자의 소속 부서 내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일대일 면접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50분 정도이다. 이웃사랑선교부에서 먼저 면접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면접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이후 연구자가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면접 실시단계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면접내용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연구자가 설명하고 면접내용 녹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전체 면접내용이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원자료화하였다.

자료분석은 Struass와 Corbin(1990)의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녹음내용을 듣고 필사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구성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한 후, 이를 연구문제에 따른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는 사랑의교회 교역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역자는 조사 당시 사랑의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전임 교역자들 가운데 설문조사가 어려운 외국인 교역자를 제외한 114명 전수를 대

상으로 하였다. 교인 대상 조사는 사랑의교회 목양 사역의 핵심인 소그룹 모임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고, 청년부와 기드온(30대 이상 미혼자로 구성된 부서) 소속 성인 교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9개 목양팀에서 팀별로 각 12개~14개 일반 다락방을, 목양팀과 전문팀에서 총9개(목양팀 1개, 전문팀 8개) 전문 다락방을 선정하되, 팀 소속 교역자별로 1개~3개 다락방을 선정하고, 각 다락방마다 평균 4명의 교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125개 다락방,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락방을 선정하는 과정에 남자, 여자, 여직장인 다락방의 비율이 고려되었다. 청년부와 기드온에서는 각각 50명의 교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그리고 사회봉사 및 구제활동 참여 현황 등이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교역자나 교인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교역자에게는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예산, 인적자원, 조직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고, 교인에게는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담당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하였다. 또한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있어서 사회복지활동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를 묻는 문항은 교역자에게만 질문하여 알아보았다.

<표 2> 설문조사 내용

영역	교역자	교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수행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사회복지활동 예산 -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사랑의교회 내 지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담당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인지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법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범위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 역할 및 주력 영역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전개 형태 -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기획 및 방향설정의 주체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불참 이유 -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 - 사회봉사활동 지속기간 및 내용 - 사회봉사활동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활동 시 어려움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변화 - 사회봉사 관련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후원활동 참여 여부
--	---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사랑의교회 이웃사랑선교부의 협조를 받아 2010년 5월 18일에서 6월 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전임 교역자 114명에게 배부된 설문지 중 77부가 회수되었는데, 77부 중 2부는 교인용 설문지에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75부를 분석하였다. 교인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542부가 회수되었으며 542부 모두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15를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선정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교회 복지사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전문가이면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아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발전방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천가와 연구자들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총 7명으로, 기독교사회복지 또는 교회 복지사역 현장 전문가 5명과 기독교대학교 또는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이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교회나 기독교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하거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수들은 기독교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로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경험도 있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전공	사회복지 관련 총 경력	현 소속기관 경력	소속기관	직책
참여자 1	남	50대	사회복지/신학	25년	3년	기독교 연합봉사단	사무총장(목사)
참여자 2	여	40대	사회복지/교육학	14년	9년	기독교복지재단 산하기관	기관장
참여자 3	남	40대	사회복지	19년	3년 8개월	교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참여자 4	남	40대	사회복지/신학	10년	6개월	교회	복지사역부서 담당목사
참여자 5	여	40대	사회복지	13년 8개월	1개월	교회복지재단 산하기관	부장
참여자 6	남	40대	사회복지	20년	11년	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자 7	남	40대	사회복지/신학	12년	7년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목사)

2) 초점집단면접의 목적 및 내용

초점집단면접은 한국교회 복지사역 전반에 대한 거시적 맥락에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점집단면접의 주제는 크게 한국교회 복지사역 전반에 대한 것과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은 어떠하며, 향후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교회가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수준이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 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복지사역과 공공복지와의 관계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은 연구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집단토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Patton, 2001, Morgan, 1998).

연구자가 면접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초점집단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이후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목적, 내용, 일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공지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10년 9월 11일 사랑의교회 접견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전체 면접 일정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 2명이 주진행자와 공동진행자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보조원 2명이 녹음과 기록을 담당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일반적 사항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면접을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자가 면접내용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면접내용 녹음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체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필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코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구성하였다.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였고, 이를 연구문제에 따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사랑의교회에서는 이웃사랑선교부, 사랑의복지재단, 호스피스, 북한사랑의선교부, 세계선교부, 장애인선교부, 지역사회선교부, 의료선교회 등 다양한 부서들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구의 규모나 기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상기한 부서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이웃사랑선교부와 사랑의복지재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비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웃사랑선교부와 사랑의복지재단의 세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랑의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사업내용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II. 연구결과

1. 심층면접 결과

사랑의교회에서 복지사역과 관련되어 직, 간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는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발전방안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먼저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크게 교회 복지사역의 목적과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서 복지사역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의 범주로 나타났다. 면접 참여자들은 복지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으며 복지사역 역시 그 과정에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복지사역은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전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복지사역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의 복지사역, 성도의 구제와 사회봉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정의되었다. 특히 ‘제자훈련 하는 교회’인 사랑의교회에서 복지사역은 제자훈련의 열매로서, 훈련받은 성도는 봉사하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러한 복지사역은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 수준,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 및 행정의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주어진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교회의 위상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순장사역으로 대표되는 “말씀사역”에 집중하느라 구제나 사회봉사에 는 충분히 힘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복지사역에 투입하는 물질적 자원은 교회나 성도의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봉사사역에 소극적인 편이어서 사회봉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적극적인 봉사자들은 쉽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교인들 중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점, 교회 내에 복지사역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한 점, 봉사자 대상의 교육·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봉사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조직 및 행정에 있어서는 협력사역이 어렵고 행정적 체계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복지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역이 방만한 대형교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과 검증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사랑의복지재단 및 산하기관들과 교회나 성도들과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발전방안은 현 사역에 대한 정비와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의 두 범주로 정리되었다. 현 사역을 정비하는 방안 중 시급한 것으로 대다수 면접 참여자들이 복지재단의 강화를 꼽았다. 복지사역의 확대, 전문성 고양, 국가 복지정책과의 공조 등을 위하여 재단이 강화되어야 하고, 중심의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재단이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목회자와 복지전문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목회자는 신앙적 영역에서, 복지전문가는 복지실무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사역과 목양사역 간의 연계

강화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 참여 등도 현 사역에 대한 정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복지사역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에 있어서, 먼저 본 교회 복지사역이 지향할 목표는 한국교회에 복지사역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자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겨온 것처럼 복지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사역의 범위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시작하여, 이 나라를 품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교회가 헌신해야 할 복지사역의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수행할 복지사역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소규모·미자립 교회의 복지사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표 4> 심층면접 분석 결과

영역	범주	개념
복지사역에 대한 신념	복지사역의 목적	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
		② 복지사역이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복지사역의 자리매김	① 복지사역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② 복지사역은 제자훈련의 열매
		③ 복지사역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수행되어야 함
평가	전반적 수준	① 크게 성장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아쉬움
		② 봉사사역보다는 말씀사역
	물질적 자원	① 최대한하고 있음
		① 사회봉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함
	인적 자원	② 통합적인 인적 자원의 연계가 어려움
		③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조직/행정	① 협력사역이 어려움
		② 관리 및 시스템이 취약함
③ 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이 동떨어짐		
④ 효율성이 부족함		
발전방안	현 사역에 대한 정비	① 복지재단 중심의 복지사역 강화
		② 목회자와 복지전문가의 역할 분담
		③ 목양과의 연계 강화
		④ 지도층의 적극적 참여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	① 복지사역의 모델 제공
		② 지역사회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품는 사역
		③ 선택과 집중
		④ 소규모·미자립 교회의 복지사역 지원

2. 설문조사 결과

1) 교인의 교회활동 참여 현황

조사대상 교인의 대부분인 92.5%가 새가족반에 참여했으며, 62.2%가 성경대학, 53.3%가 제자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반면, 교사훈련원(8.3%), 은사개발세미나(6.9%), 선교학교(5.9%), 은사섬김학교(4.2%), 호스피스교육(2.6%), 포에버평생교육(1.4%), 북한선교교육(1.4%), 사랑부교사대학(0.4%)과 같은 프로그램에의 참여현황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교회봉사활동 참여 현황은 순장사역(56.5%), 이웃사랑선교부(19.4%), 안내위원(16.3%), 주일학교(14.1%), 헌금위원(11.7%), 중보기도(1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웃사랑선교부 외에 복지사역에 해당하는 사랑의복지재단 및 산하기관(3.2%), 호스피스(3.2%), 의료선교회(1.6%) 참여 현황은 모두 응답자의 5% 이하로 저조하였다.

신앙생활형태는 주일대예배(96.9%), '다락방'(90.0%)에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경우(57.2%), 정기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경우(56.4)가 과반수를 넘었고 그 외에 부서별 예배나 수요예배, 새벽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41.7%로 나타났다.

2)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데 대해, 그리고 사회복지활동 전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역자, 교인 모두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96.0%가 긍정적 응답을 한데 비해, 교인은 82.0%만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알아본 결과 '사회봉사 및 구제와 같은 사회복지활동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내용(교역자 8.43점, 교인 8.00점)과 '이웃사랑의 신앙적 실천을 위해'라는 내용(교역자 9.38점, 교인 8.88점)에 대해서 교역자나 교인 모두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는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라는 내용(교역자 5.25점, 교인 6.18점)과 '교회의 인식개선으로 전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라는 내용(교역자 6.38점, 교인 6.51점),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는 내용(교역자 6.90점, 교인 6.60점)에 대해서는 교역자 및 교인 모두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예산 및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내용에 있어서는, 교역자의 경우 18.47%, 교인의 경우 20.82%를 적정 사회복지활동 예산 비율로 응답하였고,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10점을 만점으로 할 때 교역자 5.46점, 교인 5.37점으로 응답하였다.

3)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역자는 7.24점, 교인은 6.42점으로 평가하여 한국교회 전반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교역자 5.46점, 교인 5.37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사랑의교회 내 지지 정도와 관련하여, 사랑의교회 설교나 훈련과정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는 35.2%, 교인은 49.4%로 교역자나 교인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교역자의 71.6%, 교인의 65.3%가 지지적이라고 느끼는데 비해,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에 있어서는 교역자의 44.6%, 교인의 48.4%만이 참여가 활발하다고 응답하여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지지 정도와 실질적 참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에게 구제 및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역자의 74.3%가 강조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지난 1년간 전체 설교에서 구제 및 사

회봉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한 비율은 평균 16.7%로 나타났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관련 예산, 인적 자원, 조직에 대한 교역자의 평가 내용은, 예산 비율은 충분하며(62.2%),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높고(64.9%), 조직과 시스템이 체계적이라고(69.0%) 응답한 반면, 인적 자원의 규모 면에서는 30.1%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담당 기관 및 부서에 대한 교인들의 인지 정도는, 사랑의교회 내 부서인 이웃사랑선교부에 대해서는 46.8%가, 호스피스·의료선교회에 대해서는 46.5%가, 장애인선교부에 대해서는 43.6%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에 사랑의복지관에 대해서는 39.9%, 사랑의복지재단에 대해서는 25.1%,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각각 23.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모두 20% 이상이었는데,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사랑의복지재단이 36.6%, 사랑의복지관이 24.2%, 장애인선교부가 22.1%, 이웃사랑선교부와 호스피스·의료선교회가 22.0% 순으로 나타났다.

4)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및 발전방안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법으로 교역자와 교인 모두 ‘교회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교역자 35.3%, 교인 35.1%)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전문 인력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교역자 22.0%, 교인 17.6%)에 대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외에 교역자는 효율적 조직(17.3%)에 대해, 교인은 물질적 자원(15.2%)에 대해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범위 및 주체에 대해서는 교역자, 교인 모두 우리나라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교역자 36.8%, 교인 42.8%),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교역자 30.9%, 교인 25.5%)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 수혜 범위를 교인이나 교회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교역자의 22.1%, 교인의 27.3%에 이르렀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기획 및 방향 설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74.3%가 교회 내 복지전담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중점 역할 및 주력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향후 중점 역할로서 교역자, 교인 모두 ‘독자적인 형태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역할’(교역자 30.8%, 교인 27.2%)과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역할’(교역자 29.9%, 교인 30.6%)을 중요하게 꼽았다. 향후 주력해야할 영역에 대해서는 교역자, 교인 모두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복지 영역(교역자 32.4%, 교인 26.8%)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영역(교역자 14.8%, 교인 19.1%)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교역자의 경우는 탈북자·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영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12.7%), 교인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15.6%)을 보였다.

사랑의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향후 전개 형태와 관련하여 교역자의 경우는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23.9%), 사회복지시설 설립이나 위탁운영(22.9%), 개인 혹은 가족들 간 결연사업(22.9%) 형태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교인 역시 교역자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설립이나 위탁운영(23.1%)이나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20.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역자와는 달리 상담 및 교육활동(22.1%)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이 차이가 난다.

소규모 혹은 미자립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역자(96.0%) 및 교인(94.2%)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경우 인적 자원 지원(30.9%), 교회 사회복지활동 모델 제공(30.9%), 물질적 지원(21.8%)을 언급한데 비해 교인은 물질적 지

원(43.0%)과 인적 자원 지원(20.5%) 순으로 응답하였다.

5)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현황

교역자의 32.0%, 교인의 32.4%만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교인의 경우 직분별로 보았을 때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율(53.3%)이 서리집사(36.7%)나 일반성도(1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다(교역자 78.0%, 교인 47.8%). 사회봉사활동 참여경로를 보면 교역자, 교인 모두 교회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교역자 83.3%, 교인 61.1%)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 관공서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교역자 16.7%, 교인 22.8%)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회봉사활동 지속기간은 교역자, 교인 모두 4년 6개월로 나타났다. 활동 내용은 교역자의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 33.3%가, 노숙자·외국인 노동자·탈북자·재소자 등 특수 소외계층 대상 분야에서 28.6%가 활동하였고, 교인의 경우는 노인 분야에서 35.4%가,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 20.4%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에 있어서 교역자는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고자'(34.0%)하는 동기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자'(29.1%)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인은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자'(32.8%)하는 동기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이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고자'(24.5%)하는 동기로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은 교역자, 교인 모두 시간활용의 어려움(교역자 48.5%, 교인 43.8%)과 봉사활동 참여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교역자 16.5%, 교인 13.0%)을 꼽았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후의 변화를 보면, 교역자(81.8%) 및 교인(81.2%) 모두 4/5이상이 만족하였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가(교역자 98.5%, 교인 93.0%),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교역자 95.5%, 교인 90.7%), 공동체 의식 향상(교역자 90.8%, 교인 78.5%), 신앙적 성장(교역자 94.0%, 교인 79.2%),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교역자 95.4%, 교인 89.6%)의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교역자의 90% 이상, 교인의 7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사회봉사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해서 교역자의 16.2%, 교인의 22.4%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교역자 81.8%, 교인의 85.7%).

마지막으로 후원활동 참여 현황 관련하여 교역자의 47.9%, 교인의 46.5%가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었으며, 교인의 직분별로 보았을 때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정기적 후원 참여율(60.3%)이 서리집사나 일반 성도의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초점집단면접 결과

다양한 관점에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현재를 조망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교회 외부의 복지사역 전문가들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수행한 면접조사의 결과는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황,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기대 및 발전방안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황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범주와 복지사역의 수준 및 사회적 평가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먼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있어서 면접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복지사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교회가 주로 내적 영성을 강조하면서 구제와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복지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따라서 전도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도의 직접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공공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언급되었다. 복지사역의 수준과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는 소규모 교회의 경우, 복지사역의 내용이나 수준이 부실하고 이로 인하여 교회의 복지사역이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주체들 간에 연계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양적 측면에 있어서 보수교단에 속한 개교회 차원에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사랑의교회 규모나 위상을 고려할 때는 미약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질적 측면에서는 예배나 훈련의 발전에 비해 복지사역의 내용이나 방법론에 대한 발전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기대 및 발전방안은 분야 및 영역의 범주와 방법론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분야 및 영역에 있어서 면접 참여자들은 사랑의교회 규모의 대형교회라면 정부나 민간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자립 교회 교역자와 은퇴 교역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형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역의 한 분야로 제시되었다. 대형교회로서 기독교계 내부에 대한 돌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소규모 교회의 복지사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이에선 복지사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훈련프로그램 제공, 복지사역에 대한 컨설팅 등이 포함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에 기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타 교회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제자훈련 과정에 복지사역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자훈련으로 대표되는 사랑의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본질적 사명으로부터 복지사역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사회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위한 조직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풍부한 인적 자원, 특히 다양한 전문 인력이 체계적 조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것도 복지사역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을 실천하고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가 복지사역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문화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사회봉사와 기부운동을 벌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5>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영역	범주	개념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황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및 이해	① 복지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② 복지사역이 전도의 직접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활용됨
		③ 공공 복지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복지사역의 수준과 사회적 평가	① 소규모 교회의 복지사역이 부실하고 신뢰를 받지 못함
② 연계 및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양적 측면	① 양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위상에 비해 미약함
	질적 측면	① 내용 및 방법론의 발전이 더딤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기대 및 발전방안	분야/영역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기여
		② 미자립 교회 교역자 지원 및 은급복지
		③ 소규모 교회 복지사역 지원
		④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모델개발 및 보급
	방법론	① 제자훈련에 복지사역 관련 내용 강화
		② 자원봉사 확대 및 체계화
		③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복지사역
		④ 복지사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IV. 결론 및 제언 :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핵심 관계자들의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황과 이에 따른 사랑의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기대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랑의교회 뿐 아니라 여타의 한국 대형교회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비전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비전

1) 예배로 드리는 봉사하는 삶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첫째 비전은 모든 교인들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비전은 교회 규모와 무관하게 한국교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은 사회봉사와 구제가 교회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인의 사회봉사 참여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교역자와 교인들은 훈련과정과 설교 등에서 사회봉사나 구제가 다루어지는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인식 차원에서는 사회봉사와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삶에서 실재화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실제의 괴리는 비단 사랑의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이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성도들의 삶에서 봉사사역으로 실현되는 모습이 한국교회 복지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비전이 되어야 하겠다.

2) 한국교회에 대한 섬김과 리더십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또 다른 비전은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발전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은 개교회 중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전체, 특히 소규모·미자립교회들을 섬기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데, 소규모·미자립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복지사역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발전을 위하여 각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형교회의 복지사역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처럼 대형교회는 복지사역에 있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비전으로 삼아야 하겠다.

3) 선택과 집중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헌신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세 번째 비전은 복지사역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으로,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그 영역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랑의교회가 다양한 복지사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사역이나 사랑의교회 색채가 잘 드러나는 특징적인 사역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대다수 대형교회들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므로 각 교회가 그 특성과 환경에 맞는 복지사역의 영역을 선택하여 해당 영역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여러 민간기관들이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형교회들은 여타의 주체들이 아직 손길을 뻗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군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 영역에 인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된 대형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면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비어있는 복지의 틈새를 채움으로써 국가 전체의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헌신은 대형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복지사역의 비전이라고 하겠다.

2.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발전방안

1) 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체계적인 훈련·효율적인 관리

복지사역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상기할 때, 교회가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교인들이 실제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 특히 교인 수가 많은 대형교회는 사회봉사에 헌신할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교인들이 사회봉사에 관심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나 교육과정에서 사회봉사와 구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이는 성인 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교회 사회봉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역자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평신도지도자로서 훈련되는 과정에 사회봉사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의 경우, 평신도지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사역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훈련과정에서 사회봉사와 구제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특히 사회봉사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사역훈련을 마친 교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에 헌신하여 봉사하는 삶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에 평신도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발굴된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형교회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특히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도 다수이지만, 교역자나 교인들 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각 교인마다 가장 적합한 봉사처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봉사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사회봉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복지사역 시스템 개선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복지사역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복지사역 부서에서 교회 예산을 활용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봉사와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이다. 복지사역에 적극적인 대다수 대형교회들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고 있는데, 사랑의교회 역시 이웃사랑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사역과 사랑의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랑의교회 이웃사랑선교부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다양한 사역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역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체계적 평가, 사역 효율성은 모두 사회복지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대다수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대형교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복지사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대형교회부터 교회 중심 복지사역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역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목회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영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에서 균형 있는 사역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사역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사랑의복지재단은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은 매우 긍정적이나 교회의 관심과 교인들의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재정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교회들조차 지나치게 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사회복지활동을 하거나 혹은 교회가 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즉 사랑의교회의 복지재단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후원과 자율성 보장은 다른 교회들에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 교회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복지재단과 산하기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교인들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 소규모·미자립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형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복지사역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전체, 특히 소규모·미자립 교회의 복지사역을 재정적·인적·방법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는 이미 이러한 사역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복지재단에서 2008년부터 ‘이웃사랑서포터즈’ 사역을 통하여 소규모·미자립 교회들의 복지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웃사랑선교부의 에스더미용선교회에서는 전문봉사자들을 소외지역 교회에 파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 사역은 재정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규모가 작고 복지사역 방법론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사역을 양적·질적 수준에서 크게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소규모·미자립 교회의 복

지사역에 대한 지원은 사랑의교회 뿐 아니라 다른 대형교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된 대형교회들은 각 교회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역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여 소규모·미자립 교회들의 복지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기독교사회복지 전문연구 수행

마지막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지사역의 수행과 더불어 전문적인 연구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 복지사역의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이론적 토대 구축,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 복지사역 실천의 모델 및 매뉴얼 개발, 소규모·미자립 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컨설팅,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및 자문, 교회 사회봉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때 상기한 발전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교회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을 개교회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혹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 김지찬 (2007).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pp. 25-38.
- 손병덕 (2004). “칼빈의 개혁주의 사회복지 실천과 현대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신학지남』 70(4), 159-172.
- 윤만길 (2009). “한국교회사회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학대학원대학교.
- 이만식 (2007).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pp. 787-828.
- 정상원 (2009).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연구-개인 요인과 교회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창민 (2009. 11. 16). “교회 신뢰도 0.7% 상승의 허와 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8>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CA: Sage Publication, Inc.
-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CA: Sage Publication, Inc.
- Strauss, A. C.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Inc.